



미행의 그늘
이상실 지음

도시명명 늑 속 삶의 통로는

지난 2010년 '월운리 사람들'(화남출판사)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소설로 형상화했던 안도 출신 이상실 작가가 장편소설 '미행의 그늘'을 펴냈다.

소설은 현실 세계와 사이버 세계에서 벌어지는 스토커들의 집요한 스토킹에 시달리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다룬다. 스토커의 마수에서 벗어나기 위한 여인의 몸부림은 처절하다. 스토커는 도시에서 바닷가로, 다시 호수에 이르기까지 시공간을 초월해 펼쳐진다.

순간순간 벌어지는 스토커들의 집요하고 잔인한 행위와 심리 묘사는 스릴러를 특유의 긴박감을 준다. 주인공 여인 외에도 사이버 가상공간을 교묘하게 이용해 사랑을 갈구하는 인물 등이 등장한다.

작가는 '허상에 불과한 형상들과 사이 베테라와 관음, 공포가 난무한 도시명명의 늑에서 허우적거리는 인간이 나아갈 삶의 통로는 없는 것일까'라는 의문에서 소설을 쓰게 됐다고 말한다. <개미·1만2000원> /박성천기자skypark@



빅데이터 세상
매일경제 빅데이터 프로젝트

변하는 세상 해안 제시

최근 ICT기술의 발전과 함께 '미래를 바꾸는 창'으로 불리는 '빅데이터'가 주목 받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데이터를 합리적으로 분류·분석해 결과물을 얻는 것이 빅데이터이다.

일찍이 빅데이터에 눈뜬 미국 메이저리그 구단은 심판 상황을 데이터로 분석해 스트라이크 존을 예측하는 '현미경 야구'를 하고 있고, 아마존은 사람을 구조조정할지언정 데이터를 버리는 일은 없다고 할 정도로 데이터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매일경제 빅데이터 프로젝트팀이 펴낸 '빅데이터 세상'은 기초적인 질문에 대한 답에서부터 산업현장에서 이뤄지는 빅데이터 활용사례, 그리고 학계와 정부가 연구과제로 삼아야 할 주제 등 빅데이터에 관한 지식을 총망라하고 있다. 기자들이 취재한 산업현장의 빅데이터와 서울대 교수들의 전문적인 기고가 분야별로 나눠져 있다.

<매일경제신문사·1만4000원> /김경민기자kki@kwangju.co.kr

21세기 자본주의 변영 영원할까

재평가
잃어버린 20세기에 대한 성찰
토니 주트 지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경구는 더 이상 새롭지 않다. 역사는 속성상 반복되기 마련이고, 사람들은 그 반복을 곧잘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20세기는 어떤 시대로 기억되고 있을까?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처럼 21세기에 이 전 세기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다. 세계적인 역사학자이자 저널리스트였던 영국의 토니 주트(1948~2010)는 대체로 역사는 반복된다는 관점을 견지한다.

전후 유럽에 관한 최고의 역사서로 평가받는 '포스트 워 1945~2005'의 저자이기도 한 그는 불의에 대해 단호하게 의견을 피력했던 지식인이다. 이번에 나온 그의 '재평가-잃어버린 20세기에 대한 성찰'은 20세기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잊어버렸는지를 묻는다.

“과거 쉽게 잊으면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해” 지적
마르크스주의·중동 분쟁 등 1994~2006년 기고 글

1994년부터 2006년까지 여러 잡지에 기고했던 글을 묶은 터라 주제의 스펙트럼이 꽤 넓다. 프랑스 마르크스주의자들부터 미국의 외교 정책, 이스라엘과 중동지역의 분쟁, 세계화 등에 이르기까지 방대하다. 지리적으로는 벨기에에서 이스라엘까지 걸쳐 있으며 국가와 역할, 전쟁의 본질 등이 이슈도 아우른다.

'재평가'라는 책 제목이 말해주듯 저자는 지나온 역사(20세기)를 반추하고 성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경구가 맞각에 대한 경고로 읽히는 것은 이때문이다.

20세기의 첫 조감은 지식인들이다. 몇몇은 지식인의 전형으로 조명 받고 어떤 이는 몇 가지 결함으로 비판을 받는다. 전자가 알베르 카뮈, 아서 케스트러가 속한다면 후자는 루이 알튀세르, 에릭 홉스봄 등이 해당한다.

저자는 20세기 지식인들 가운데 수많은 이들이 공산주의에 마음을 빼앗겼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가 생각하는 지식인의 유일한 준거는 '소련과 동유럽에서 공산주의의 억압에 맞선 저항'이다.

따라서 그가 규정하는 지식인 활동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동유럽과 소련

의 소수의 용감한 개인들에 국한된 일이었다. 그리고 적어도 당대에는 오늘날 우리가 더 흔케히 기리는 좌파 인사들보다 이들의 영향력이 일반적으로 더 컸다."

국가 역할에 대한 저자의 관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20세기 복지국가는 유럽국가이자 '사회주의적 국가'로 치부된다는 입장이다. '평등주의적 선봉대'가 아니라 '과거'로 회귀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벽으로 건설되었다는 것이다. 즉 경제 불황이 가져온 파시즘과 공산주의의 분열적 귀결을 차단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얘기다.

20세기 복지국가가 예방적 국가였다는 의미로 읽힌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복지국가를 물려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무엇이 복지국가를 일으켰는지 망각했다고, 저자는 일침을 가한다.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잊지 않는다. 전쟁으로 고초를 겪지 않은(때까지 않은) 미국은 21세기에 여전히 전쟁을 '전략적 선택'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대체로 다른 선진국들이 전쟁을 최후의 수단으로 상정하는 것과는 다른 맥락이다.

책을 관통해 일관되게 흐르는 메시지



21세기에도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 분쟁은 반복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내 유엔학교에 포격을 가해 폐허가 된 모습. 연합뉴스

는 간단하다. 역사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21세기 자본주의 변영이 영원할 거라는 지나친 낙관은 금물이라는 거다.

그렇다면 오늘의 한국은 20세기를 통해 무엇을 되새겨야 할까. 20세기 아시아 역사는 혼돈과 망각으로 집약된다. 해제를 쓴 홍기빈 글로벌정치연구소 소장은 '한국의 역사 인식은 커다란 정점이 되었고 우리를 포함한 아시아 과거는 모두가 합의하는 방식으로 정리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한다.

그는 황제(黃帝)와 단군과 신무(神武) 천황의 문제뿐 아니라 아시아 역사를 '망각된 역사'로 본다. 결국 '오늘'이 부

실하면 '내일'이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아시아는 여전히 냉전 중이며 일본 제국주의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자 주트의 견해는 새겨들을 만하다.

"제1차 세계 대전에 앞선 몇십 년간 자본주의 세계가 마지막으로 전례 없는 팽창과 막대한 사유재산 창출의 시대를 보냈을 때, 영국 제국에는 (오늘날 미국과 서유럽에서 그렇듯이) 그때가 진정으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무한한 평화와 변영의 시대로 넘어가는 문턱이라는 가정이 널리 퍼져 있었다."

<열린 책들·2만8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문학이 포용못한 '날 것'의 당당한 언어



일반적으로 소수자는 사회적 약자를 의미한다. 현실 속에서 소수자는 사회적 약자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이유로 소수자는 종종 동정의 대상이 되곤 한다.

그러나 자신을 소수자로 당당히 드러내면서 다수자를 향해 변할 것을 요구하는 이들이 있다. 최근 들어 소수자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이에 대한 규정과 시

각에 대한 재고가 대두되고 있다.

전남대 사회학과 윤수중 교수가 엮은 '소수자들의 삶과 문학'은 우리 사회 '아웃사이드'들의 일상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윤 교수는 소수자를 '표준화를 거부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원론적인 소수자 담론은 소수자들을 억압하는 사회적 편견과 다수자 인식을 고발하는 데 초점을 둔다. 그러나 사회가 다변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이 같은 담론은 점차 소수자들의 이색적인 삶을 그려내는 쪽으로 변화해왔다.

책에 수록된 글들은 모두 소수자 당사자들이 직접 쓴 것이다. 지적장애 엄마, 이주자, 공안수, 성노동자, 성소수자, 병역거부자, 장애인, 잡부, 게이, 레즈비언

등 다양한 계층 사람들이 날것의 목소리를 들려준다.

'너를 만나 참 나가 되는 길'은 다운중 후군 아이와 사는 엄마의 일상이 담겨 있다. 아이를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로 옮기기까지의 지난한 과정이 진솔한 언어로 펼쳐진다. 0.7평 감옥에 갇혀 있는 공안수의 생활을 다룬 '공안수의 감옥살이'는 감옥 안에서 전개되는 다양한 모습을 여과 없이 드러낸다.

'관계와 관계'에서는 소수자의 소수자인 성노동자의 삶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로 부각된다. 성노동자들의 고달픈 일상과 성 구매자들의 다양한 모습들이 실감 있게 그려진다. <문학들·1만4000원> /박성천기자skypark@

인간 이순신은 어떻게 난관을 극복했나



그러나 이순신이 있었다
김태훈 지음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우리는 영웅을 찾곤 한다. 그 영웅을 본보기로 삼아 현재의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어할 것이다. 과거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나라를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우리는 영웅을 찾곤 한다. 그 영웅을 본보기로 삼아 현재의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어할 것이다. 과거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나라를

그러나 이순신이 있었다. 그는 죽음으로 조선을 살렸다. 최근 경기 불황과 재난 사고로 7년전쟁 때보다 더 한심한 작태가 벌어지고 있는 이때 우리는 다시 이순신을 찾고 있다.

7년전쟁의 비극적 상황 속에서 이순신의 어떻게 평범한 인물에서 비범한 인물로 나아갈 수 있는가를 다룬 책 '이순신의 두 얼굴'을 펴낸 김태훈이 10년 만에 새롭게 보완한 책 '그러나 이순신이 있었다'를 펴냈다.

저자는 이순신도 때때로 잘못을 범한 인간이라는 가정 아래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솔직담백한 해답을 찾기 위해 조선의 집권층은 백성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안위를 살피는 데만 급급했다.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since 1982

창업 32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보약 홍삼은

성인병 노화방지는

- 적절한 운동
- 마음에 평안
-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062-369-9227

농성약 북고당 한약방

광성간도로 새우리병원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120,000원

농협 653-12-003100
에금주 박주환